

## 2021년 상반기 공연시장 분석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두세 달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2020년 초반에 시작된 팬데믹 상황이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2021년 상반기(1월~6월) 매출액 기준 각 장르별 상위 5위 안에 든 작품<sup>1)</sup> 들과 장르별 집계 수치를 통해 2년차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공연시장 풍경을 살펴본다.

### 용어 설명

- **유료관객비율** 전체 장르 또는 공연별 전체 관객수 중 유료관객의 비율(\*객석 점유율아님)
- **평균티켓가격** 전체 장르 또는 공연별 매출액을 유료관객수로 나눈 값.
- **대극장/중소극장**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공연장을 대극장, 1,000석 미만인 공연장을 중소극장으로 분류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객석 간 띄어앉기 정책으로 실제 공연별 좌석 운영은 공연장이 보유한 객석수와 차이가 있음.
- **상연회수** 각 공연의 상연 회차 수. 단, 2021년 상반기(2021.1.1~6.30)에 한하여 집계하였으므로, 해당 공연의 전체 회차 수보다 적을 수 있음

### 1)

2021년 1월 이전부터 또는 6월 이후까지 공연이 지속된 작품의 경우에도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치만을 집계한 것임.

### 2)

아동공연 통계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등 여러 장르에 포함된 아동공연의 수치를 합친 것임. (전체 공연시장에서 아동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4.8%, 관객수 기준 10.5%로 집계됨)

구분	매출액(만원)	관객수(명)	유료관객비율(%)	평균티켓가격(원)
연극(리미티드런)	899,158	324,503	85.0	32,607
연극(오픈런)	249,961	248,408	87.8	11,462
뮤지컬(대극장)	7,296,461	816,307	89.0	100,433
뮤지컬(중소극장)	1,846,525	558,735	88.8	37,232
클래식	1,144,143	432,350	64.2	41,196
오페라	94,702	39,343	64.7	37,211
무용	170,236	82,386	73.4	28,136
국악	37,704	43,265	60.8	14,335
복합	20,661	17,900	69.2	16,677
<b>합계</b>	<b>11,759,551</b>	<b>2,563,197</b>	<b>82.7</b>	<b>55,505</b>
아동 <sup>2)</sup>	567,302	267,083	90.5	23,481

2021년 상반기 장르별 매출액, 관객수, 유료관객비율, 평균티켓가격

관객수



매출액



— 연극[리미티드런] 
 — 연극[오픈런] 
 — 뮤지컬[대극장] 
 — 뮤지컬[중소극장] 
 — 클래식 
 — 오페라 
 — 무용 
 — 국악 
 — 복합

2021년 상반기 장르별 관객수, 매출액 비중

## ● 2021 상반기 뮤지컬 시장

뮤지컬(라이선스-대극장)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위키드	2.16~5.2	블루스퀘어신한카드홀	95	112,145	98.52%
2	팬텀	3.17~6.27	샤롯데씨어터	133	117,419	88.23%
3	시카고	4.2~7.18	디큐브아트센터	111	98,449	86.52%
4	드라큘라	5.20~8.1	블루스퀘어신한카드홀	59	123,502	98.55%
5	위키드 [부산]	5.20~6.27	드림씨어터 [부산]	48	112,070	99.99%

뮤지컬(라이선스-중소극장)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	2020.11.20~2021.3.1	홍익대대학교로아트센터 대극장	64	94,721	97.56%
2	쓰릴 미	3.16~6.6	에스24스테이지 2관	98	48,057	92.46%
3	미드나잇: 액터뮤지션	3.2~5.30	티오엠씨어터 1관	117	44,657	98.90%
4	베르나르다 알바	1.22~3.14	국립정동극장	60	53,299	98.67%
5	아이위시	3.16~5.23	서경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스킨2관	86	42,930	97.94%

뮤지컬(창작-대극장)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태양의 노래	5.1~7.25	광림아트센터 BBCH홀	71	127,872	91.47%
2	명성황후 25주년 기념 공연	1.19~3.7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63	86,473	69.13%
3	그날들	2020.11.13~2021.3.7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96	86,078	78.63%
4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1.5~2.28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69	61,656	82.33%
5	1976 할란카운티	5.28~7.4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39	71,134	56.94%

뮤지컬(창작-중소극장)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브라더스 가라마조프	3.13~6.13	에스24스테이지 1관	116	40,006	98.22%
2	검은 사제들	2.25~5.30	유니플렉스 1관	113	48,578	98.28%
3	레드북	6.4~8.26	홍익대대학교로아트센터 대극장	29	72,430	97.72%
4	더 픽션	2.27~6.13	서경대학교공연예술센터 스킨1관	137	41,827	75.65%
5	명동로망스	3.13~7.25	에스24스테이지 3관	138	40,816	74.28%

2021 상반기 뮤지컬 판매액 TOP5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의 상위 랭킹 작품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이미 여러 차례 흥행이 검증된 대작들이다. 특히 <시카고>의 경우는 20대 관객의 증가로 이전 공연 때보다 흥행 성적이 좋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스테디셀러 강세 경향은 있었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 견고해졌다. 상위권에 신작이 없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예년에는 대형 신작 한 편 정도는 상위권에 들었는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형 뮤지컬 신작을 도전하지 않았다.

대극장 창작 뮤지컬 역시 인지도 높은 작품이 상위에 올랐다. 1위인 <태양의 노래>는 신작이긴 하지만 샤이니 온유, DAY6 원필, GOT7 영재, 뉴이스트 백호 등의 캐스팅으로 팬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2위, 3위를 차지한 <명성황후>와 <그날들>은 공연 시기 일부 동안 코로나19 4단계 좌석 두 자리 띄어앉기가 적용되어서 피해가 컸다. 상위권이었지만 매출 성과는 높지 못했다. 대극장 뮤지컬 시장은 라이선스 슝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중소극장의 경우도 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은 작품들이 상위에 올랐다. 중소극장에서는 화제가 되었던 <베르나르다 알바>와 신작인 <검은 사제들>이 진입한 것이 눈에 띈다.

뮤지컬은 전체 시장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회복되어가는 분위기였다. 인터파크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 2월부터는 회복세가 뚜렷했다. 6월 시장만 보면 올해 뮤지컬 시장이 2019년 시장을 앞섰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시장과 비교할 때 뮤지컬 시장은 규모로는 90%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장르나 좌석 규모에 상관없이 좌석 띄어앉기로 인해 70% 정도만 티켓을 판매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유료관객 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

- 인터파크 공연컨설팅팀 이동현 팀장

● 2021 상반기 연극 시장

연극(리미티드)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알앤제이(R&J)	2.5~5.2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	100	49,996	98.73%
2	아마데우스	2020.11.17~2021.2.28	광림아트센터 BBCH홀	37	66,718	96.07%
3	얼음	1.8~3.21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92	47,196	94.99%
4	완벽한 타인	5.18~8.1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51	61,827	72.95%
5	스페셜 라이어	2.26~4.25	백암아트홀	71	51,464	93.47%

연극(오픈런)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한뼘사이	3.19~오픈런	라운아트홀	283	15,578	100.00%
2	옥탑방 고양이	오픈런	틴틴홀	371	11,970	48.01%
3	라면	1.16~오픈런	해피씨어터	424	14,909	100.00%
4	쉬어매드니스	오픈런	콘텐츠박스	281	11,897	100.00%
5	오백에 삼십	오픈런	아트포레스트아트홀 1관	300	14,146	100.00%

2021 상반기 연극 판매액 TOP5

“리미티드 연극의 경우 <알앤제이>나 <아마데우스>는 공연할 때마다 상위권에 오르는 작품이다. 리미티드 연극 역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인기작이 상위권에 올랐다. <얼음>의 경우는 매출이 높은 작품은 아니었는데 TV 프로그램 <1박2일>에 출연한 김선호가 캐스팅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티켓 오픈일에 세종문화회관과 인터파크 예매 시스템을 다운시킬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신작인 <완벽한 타인>은 원작 영화의 인기도 있고 젊은 관객 취향의 소재와 이야기라서 신작이지만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다.

<옥탑방 고양이>, <쉬어매드니스>, <오백에 삼십>은 매해 약간의 순위 변동만 있을 뿐 고정적으로 오픈런 연극 상위 랭킹에 오른 작품이다. 오랜 동안 오픈런 연극 랭킹에 새로운 작품이 진입하지 못했는데 <한뼘사이>와 <라면> 등 신작이 진입한 것이 특징이다. 오픈런 연극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던 장르다. 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이 주요 타겟층인데 팬데믹 상황에서 좁은 소극장 오픈런 연극을 찾는 비중이 줄었다. 게다가 판매 한 축을 담당했던 학생 단체 판매가 사라졌다. 오픈런 연극은 굉장히 낮은 제작비 구조이므로 티켓 가격이 낮는데 회당 관객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 상위권에 오른 작품조차 매출액이 매우 낮았다. 전체 연극 매출액은 2019년도의 50% 정도 수준에 그쳐, 코로나19로 축소된 인한 시장 규모 회복세가 유지될과는 크게 달랐다.”

- 인터파크 공연컨설팅팀 이동현 팀장

● 2021 상반기 클래식·오페라·무용 시장

클래식+오페라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더 포레스텔라	6.26~27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2	105,863	99.46%
2	포레스텔라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 시간여행	3.26~2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	94,284	97.22%
3	디즈니 인 콘서트	4.10~11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	71,287	92.50%
4	시네마 파라디소	2.27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2	114,295	91.70%
5	더 포레스텔라[수원]	6.12~13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2	114,961	98.18%

무용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1	돈키호테	6.4~6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5	51,616	88.46%
2	라 바야데르	4.27~5.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	31,149	91.04%
3	해적	3.23~28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	31,617	91.22%
4	말괄량이 길들이기	6.15~2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7	24,499	89.20%
5	감괘	4.16~1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2	42,094	91.64%

2021 상반기 클래식+오페라/무용 판매액 TOP5

“클래식, 오페라는 디즈니를 제외하면 <팬텀싱어> 출신 가수의 콘서트가 상위권을 장악했다. 코로나19로 수시대관이 많았는데 <팬텀싱어> 콘서트는 팬덤층을 보유하고 있어 홍보 기간이 짧아도 공연이 가능해 대형 공연장 수시대관이 가능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 해외 팀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독식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클래식, 오페라 장르 상위 랭킹된 작품 평균 티켓 가격이 10만 원을 상회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클래식 장르 공연에 비하면 비싼 편이다. 국내 클래식 공연의 경우 평균 티켓 가격은 6~7만 원 선이다. 상반기에는 중소극장에서의 소규모 클래식 공연 건수도 많지 않았다.

무용 장르에서는 서울시무용단 <감괘>를 제외하고는 발레가 상위권을 모두 차지했다. 발레는 워낙 애호가층이 단단하다. 작년에 거의 공연을 올리지 못해서 애호가의 갈증이 있었다. 올해 들어 국내 대표적인 발레단인 유니버설발레단이나 국립발레단이 연이어 대표작들을 선보이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 예술의전당 고객마케팅부 김영민 부장

● 2021 상반기 아동공연 시장

아동				상연횟수	평균티켓가격	유료관객비율
NO.	공연명	공연기간	공연장소			
1	알사탕 [서울]	2020.4.11~2021. 8.29	더 서울라이티움 (전용관)	256	24,640	89.64%
2	디즈니 인 콘서트	4.10~11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	71,287	92.50%
3	드래곤 하이	5.1~6.20	극장용	69	30,258	58.06%
4	흔한남매: 엄마의 꿈을 지켜라!	6.19~20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6	32,515	98.40%
5	신비한놀이터 (앵콜)	4.23~8.29	신한카드 판스퀘어	80	22,921	81.36%

2021 상반기 아동공연 판매액 TOP5

“여름방학 기간이면 아동공연 성수기라 공연건수가 많았는데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아동공연 시장이 다른 장르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기가 더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아동공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체 예매 시장이 완전히 사라졌다. 올해 상반기 상위 랭킹된 작품을 보면 뚜렷한 변화가 보인다. 팬데믹 이전에는 <시크릿 쥬쥬>와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아동공연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금은 <알사탕>이나 <장수탕 선녀님> 같은 인기 동화책을 토대로 한 웰메이드 아동극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 같다. 기존 아동공연 시장에서는 플라잉 등의 화려한 무대 기술이 사용되는 작품이 인기가 많았다. 최근에는 그런 영향이 줄고, 인기 동화 등 검증된 작품 IP의 힘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을 공연장에 데려오는 것의 위험부담이 큰 만큼, 보호자들이 작품성 좋은 공연을 엄선해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 브러쉬씨어터 이길준 대표